



##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 2 권

重傳 이희빈

## 소개글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있었으니 오죽하면 나랏님마저 무참하게 보냈으면서도 아직도 그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법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원칙이 무시되고 오로지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는 행위는 차마 그 정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쓴소리가 듣기싫고 보기싫다고 문을 닫고 폐지시키는 작태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소통을 하자고 합니다. 수 십년 아니, 근 100여년 이상을 그렇게 무참하게 착취 유린하고도 모자라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세이니 과연 얼마를 더 채워야 그 욕심의 끈을 놓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다라행시를 통하여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풍자적으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르시어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 \_ ^\*

## 목차

1	가나다라.....(101) (예측할 수 없는 영혼)	8
2	가나다라.....(102)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9
3	가나다라.....(103) (온정의 손길)	10
4	가나다라.....(104) (늘어진 팔자)	11
5	가나다라.....(105) (가까이 있으면 그리움을 모른다)	12
6	가나다라.....(106) (나 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한다면)	13
7	가나다라.....(107)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14
8	가나다라.....(108) (회과 (悔過))	15
9	가나다라.....(109)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16
10	가나다라.....(110) (아물지 않은 상처)	17
11	가나다라.....(111) (내 사랑을 받아주오)	18
12	가나다라.....(112) (이웃을 돌아보시구려)	19
13	가나다라.....(113) (벌써 이렇게 되었나)	20
14	가나다라.....(114) (원앙 어선장의 기도)	21
15	가나다라.....(115) (노총각의 마음을 흔드는 그녀)	22
16	가나다라.....(116)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23
17	가나다라.....(117) (좁은 길을 만나면 피하기 어렵죠)	24
18	가나다라.....(118) (엄부(嚴父))	25
19	가나다라.....(119) (우리나라의 토종 여인상)	26
20	가나다라.....(120) (바르게 가르칩시다)	27
21	가나다라.....(121) (강원도 여행 풍경)	28
22	가나다라.....(122) (봄을 기다리는 마음)	29
23	가나다라.....(123) (한국 남성을 따라왔어요)	30
24	가나다라.....(124)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31
25	가나다라.....(125) (하나님은 아실런지요)	32

26	가나다라.....(126) (내마음을 흔들었네)	34
27	가나다라.....(127) (바위 틈에서 자라는 노송(老松))	35
28	가나다라.....(128) (어느 아가씨)	36
29	가나다라.....(129)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	37
30	가나다라.....(130) (베펴자에게는 꼭 행운이 오죠)	38
31	가나다라.....(131) (흠뻑 커버린 아이를 바라보며)	39
32	가나다라.....(132)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우는 이유)	40
33	가나다라.....(133)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41
34	가나다라.....(134) (산불조심 강조기간)	42
35	가나다라.....(135) (양보운전의 미덕)	43
36	가나다라.....(136) (하늘은 그대로 인데 인생만 늘어)	44
37	가나다라.....(137)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들)	45
38	가나다라.....(138) (차원 높은 운동장의 모습)	46
39	가나다라.....(139) (후원의 손길)	47
40	가나다라.....(140) (아양을 떠는 여식)	48
41	가나다라.....(141) (그 누구도 모르리)	49
42	가나다라.....(142) (샛강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50
43	가나다라.....(143) (푸른 자연)	51
44	가나다라.....(144)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52
45	가나다라.....(145) (인생 계급장)	53
46	가나다라.....(146) (비장한 각오로 임하라)	54
47	가나다라.....(147) (사랑으로 멎든 가슴)	55
48	가나다라.....(148) (하나 밖에 없는 나)	56
49	가나다라.....(149) (코 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들)	57
50	가나다라.....(150) (찰떡 궁합)	58

51	가나다라.....(151) (키가 큰 아가씨)	60
52	가나다라.....(152) (조용한 산속에서 우는 피꼬리)	61
53	가나다라.....(153)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62
54	가나다라.....(154) 꼭 대성大成하거라	63
55	가나다라.....(155) (소중한 삶의 의미)	64
56	가나다라.....(156) (장점만을 찾으십시오)	65
57	가나다라.....(157) (우와하게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66
58	가나다라.....(158)(람보 춤에 쌈바 춤까지)	67
59	가나다라...(159) (부엌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지요)	68
60	가나다라.....(160) (참았더라면 좋았을텐데)	69
61	가나다라.....(161)(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70
62	가나다라.....(162) (할증료만 올라가는 인생)	72
63	가나다라.....(163)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질 때)	73
64	가나다라.....(164)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시절)	75
65	가나다라.....(165)(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갈 때)	77
66	가나다라.....(166) (돌팔매)	79
67	가나다라.....(167) (거머리한테 물린 말만한 처녀)	81
68	가나다라.....(168)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네)	82
69	가나다라.....(169)(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려면)	83
70	가나다라.....(170) (적자생존)	84
71	가나다라.....(171) (누구를 원망하리오)	85
72	가나다라.....(172)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	86
73	가나다라.....(173) (근심걱정이 없는 노후를 )	87
74	가나다라.....(174) (만삭이 된 임산부는 조심할 것)	88
75	가나다라.....(175)(싱그러운 자연의 향기)	89

76	가나다라.....(176) (기쁨의 날이 꼭 올 것ियो)	91
77	가나다라.....(177) (버려지는 음식을 보면서)	92
78	가나다라.....(178) (어느 매춘부의 몸부림)	93
79	가나다라.....(179)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네)	94
80	가나다라.....(180) (벗어나고 싶은 혼잡한 도심)	95
81	가나다라.....(181) (과음을 하지 마십시오)	96
82	가나다라.....(182) (부서진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지요)	97
83	가나다라.....(183) (바닷가에서)	98
84	가나다라.....(184) (하룻밤을 자더라도 만리장성을 쌓으십시오)	99
85	가나다라.....(185) (고란사에서 느낀 하룻밤)	100
86	가나다라.....(186) (상가집의 모습을 지켜보며)	101
87	가나다라.....(187) (말 못하는 나귀의 하소연)	102
88	가나다라.....(188) (인간들의 철의 장막)	103
89	가나다라.....(189) (남북통일을 못보고 눈을 감는구나)	104
90	가나다라.....(190) (가엾은 어머니)	105
91	가나다라.....(191) (너무 가벼워진 어머니의 옥체)	106
92	가나다라.....(192)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107
93	가나다라.....(193) (그 때가 그리구나)	108
94	가나다라.....(194) (積善之家는 必有如慶)	109
95	가나다라,,,,,(195) (무더운 여름에 조심해야 할 것들)	110
96	가나다라.....(196) (비상이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111
97	가나다라.....(197) (부끄러운 일을 당한 처녀)	112
98	가나다라.....(198) (일확천금을 노린 결과)	113
99	가나다라.....(199) (굳은 맹서를 했거든요)	114
100	가나다라.....(200) (고군산 군도의 풍경)	115

**구**천에 떠도는 슬픈 영혼이

**누**구를 원망하리오마는, 하물며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도 하늘의 일기를 알아서 비가오면 자신의 집이

**루**수(漏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땅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듯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정적일 때 항상

**수**난과 실패가 올 것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우**리네 인간들은 대부분 불행이 올 것을 예측하지 않고

**주**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에 갑자기

**추**한(?) 꼴로 바뀌는 때가 종종 있지요!

**쿠**테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더라면

**투**구를 벗고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푸**념을 하며 저세상에서

**후**회하며 떠도는 영혼은 아니 되었을텐데 말이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정치든 사회든 가정이든

**날**마다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지요!

**달**래주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랄**라리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요!

**발**전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좀더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찰**떡 궁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칼**국수라도 서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요!

**팔**을 걷어 부치고 남을 돕겠다는 봉사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듯,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요!



거 국적인 차원에서 좀더 신중하고

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더 러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러브 신(love scene)을 연출하듯 부드럽게 생각하십시오!

머지 않아 통일의 길은 열릴 것이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북한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울에서 보내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북한에서

어찌 뿌리치기만 하겠으!

저마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처연(處然)하게 기다리면 이 나라에 통일과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요!

터를 그만큼 닦아 놓았으니 애써서 항아리에

퍼 담은 물을 깨뜨려 쏟는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허무하게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요!

**개** 팔자는 오뉴월에 느러진다고 하는데

**내** 팔자는 언제 늘어지게 퍼질 것인가.?

**대** 보름날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비읍니다!

**래** 후년(來後年)에는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잘 가서

**매** 미처럼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배** 를 두드리며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새** 끼를 낳아 오손도손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 아범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며

**재** 미있는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채** 나물을 맛있게 무치려고 달래를

**개** 다가 깨끗이 씻어서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태** 어나서 최고의 늘어진 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 기가 있고 멋있는 남자를, 그리고 내가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마**냥 즐겁고 늘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망울 속에 그리움이 없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라도

**아**주 오랜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자**석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아무리 성격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도

**카**페인(cafeine)이 함유된 따끈한 커피 한잔 나누다 보면

**타**오르는 모닥불 처럼 가슴속을

**파**고드는 따뜻한 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끼지요!

**하**도 속이 상할 때에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나**의 가족보다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다**정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으십시오!

**리**면이라도 서로 나누어 드시겠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열고 밝은 미소를 지으신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악한 감정을 품은 나쁜

**사**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아**픈 상처가 있는 장애인과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신다면, 그들의 가슴속에 가득하게

**차**있는 사회에 대한 악한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카**~ 하고 맥주라도 한잔 들어 건배 제의를 할 것이요!

**타**인의 슬픔과 괴로움은 곧, 나의 슬픔과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하시고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회는 모두가 건강할 것입니다!

**김**치를 잘못 담그면 한해 겨울 원수이고

**남**을 잘못 만나면 평생 원수라는 말처럼

**덤**자(字)에 점하나를 잘못 찍으면 덤자(字)와 담자가 되지요!

**림**삼(林森)이 우거진 산속에서 단돌 만의 비밀도

**밈**자(字)인지 맘자인지 머자인지 하느님은 다 아시지요!

**빔**(건축용 철재)을 설치하고 웅벽을 쳐 놓은 캄캄한 곳이라도

**심**중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며

**임**신을 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까지도

**짐**작하여 헤아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며 김치를

**킴**치로 말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툼**파니(timpani)를 박자가 틀리지 않게 두드렸는지?

**핼**자를 쓰려다가 점하나를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힘**을 모아 신중을 기해야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가슴을

**녹**이듯 당신의 그 짜릿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구려!

**똑**똑 떨어지는 그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록**용(鹿茸)을 듬뿍 넣은 보약같구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리오!

**복**덩어리 같은 당신을 내가 어찌 그렇게도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오..!

**옥**석(玉石)을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죽**발을 휘두른 나 자신을 원망하며

**촉**촉히 젖은 나의 눈물을 손등으로 씻으며,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 가슴의 참회(慘悔)를

**톡**쏘듯 냉정하게 뿌리치지 마시고 나의 희망이

**꼭**싹 무너지지 않기를 이렇게 빌고 있오!

**후**시라도 마음이 돌아서면 전화라도 주시구려!

**가**슴이 저며오는 애절한 이 소리가 들리느냐?

**나**이도 어린 네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영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으니 말이다!

**라**이타에 담배불을 붙여 설움을 달래 보려고 해도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구나..!

**바**닥에 뒹구는 잿더미 위에서 너의 자취를 찾아보아도

**사**랑하는 너를 찾을 수가 없구나..!

**아**직도 방안에는 너의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떠났 구나..!

**차**오르는 이 설움을 달랠 길이 없구나..!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주며 부모의 건강을 기원하던 네가

**타**들어가는 불테미 속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다니..?

**파**헤쳐 보아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너를 찾을 길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단다..!

(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속에서 딸을 찾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 헤아리며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애뜻함을 글로나마 위로의 말씀 을 드립니다! )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나의 외로운 가슴을 노크하고 있네!

다 지나간 세월의 일이었건만

라디오 드라마 같은 추억속에 그 사연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네..!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듯

사뿐히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버린 그대

아물지 않은 그 때, 그 상처를

자꾸만 메만지며 쓸쓸하게 나홀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외롭게 서 있네!

카페리호의 선상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타국의 경치를 감상하다가 그 몸쓸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너를 그리워 하며

하늘도 무심한 세월의 뒤편길을 더듬고 있네!



**기**꺼이 내 사랑을 받아 준다면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다**덤돌이 될 것이며, 결코 그 사랑은 인생의

**리**허어설(rehearsal)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오!

**미**워도 결코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 마음은

**시**종일관(始終一貫) 그대만을 사랑할 것이오!

**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신다면

**지**구상에서 최대의 행운을 잡았다고

**치**부(置簿)해도 좋을 것이오!

**키**(key)가 꽤나 많을 것이며 그대의 얼굴은

**티**없이 맑고,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감에 취해

**히**죽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오! ;

**거**금(巨金)을 별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고

**너**무 구두쇠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러는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며 이웃과 함께

**러**브-송(love-song)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머**나면 미래를 내다보고 절대로 이웃을

**버**리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보살피는데

**어**찌 내가 어려울때 이웃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리오?

**저**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슬픔을 당해

**처**절하게 울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감싸 준다면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요!

**터**놓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퍼**져 나간다면 이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며

**하**전하고 슬픈 일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요! ; ;

**가**누지도 못하는 어린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벌써 50줄이라니.?

**다**방에 홀로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들려오는

**라**-콤파르시타 라는 추억의 옛날 경음악을 듣다 보니

**마**음이 웬지 모르게 착잡해지는구나!

**바**람같이 스쳐 지나간 세월을 정리할

**사**이도 없이 인생의 절반 이상이 다 흘러갔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태산같이 많은데

**자**신의 몸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구나..!

**차**(茶)가 다 식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문득

**카**운터 위에 걸린 시계를 보니 밤이 꽤나 깊었네.

**타**다 남은 담배를 잿털이에 부실러 끄며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하**루라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저**세계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는 항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러**시아 근해(近海)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이지요!

**머**나면 타국의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버**티기 힘든 하루의 피로를 달래봅니다!

**서**러운 내 마음을 날아가는 저 갈매기가

**어**찌 알겠나마는

**저**렇게도 슬피 울어대는 것을 보니

**처**량한 내 모습을 짐작이라도 하는 것 같구나!

**커**다란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나의 꿈과 가족의 꿈을 가득

**퍼**담아 가지고 금의환향 하리라는 것이

**히**사가 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강**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봄을 부르고 있네.

**낭**자의 가슴속에는 너를 부르고 있는 듯

**당**근의 붉으레 한 빛깔처럼

**랑**주골 처녀의 입술은 붉게 타고 있네!

**망**망대해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은 낮선

**방**랑자의 외로움을 아는 듯 날개짓을 하고 있구나.

**상**큼한 봄바람이 불어와

**양**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깨우고 있네!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의 애타는

**창**가소리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강**강춤을 추는 그 여인은

**탕**수육을 너무 좋아하기에 중국을 여행하고 싶단다.

**팡**팡하게 부풀어 오른 그 풍만한 가슴은

**항**구를 떠날 때까지 노총각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네! ;

**가**물 가물 기억 조차 희미한

**나**의 옛 추억들이 머리속에서 이제는

**다** 사라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웁구나!

**라**면땅을 뜯어 놓고 소주 한잔 기울이며

**마**음을 달래던 그 때 그 시절이

**바**로 엇그제 같았는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사**진속에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 둘씩 나 있을 테지..!

**자**연의 이치를

**차**츄 차츄 알게 될 때쯤 이면 모 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카**운트 다운(count-down)에 들어 가겠지..!

**타**오르던 열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파**초의 푸른 꿈도, 모두 물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하**늘의 이치를 빨리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고**생이 따르더라도 꺾꺾 눌러참고 극진하게  
**노**(老)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불손한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결국 그것이 곧 닥쳐올  
**로**봉협처(路逢狹處)에 난회피(難回避)니라. 그대로  
**모**든 자식들이 부모인 자신에게 효성을 다하여  
**보**살피지 않을 것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시적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오**만불손하여 그대로 행할 것이니, 바쁘더라도  
**조**석(朝夕)으로 문안드리고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극진하게 모신다면  
**코** 흘리게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자식들이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행할 것이오!  
**포**데기에 자식을 업고서 부모를 학대하면 나중에  
**호**된 경우를 그 자식에게 당할 것이니 명심하시오!

**고**이 고이 기른 내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애지중지(愛之重之) 길렀는데.. 마치,

**도**독맞은 기분이구나 !

**로**또 복권 이라도 맞았으면 바리바리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시집을

**보**냈을텐데, 이렇게 그냥 보내다니..!

**소**주 한잔을 마시면서 딸 생각에

**오**늘도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디기 바라며

**초**년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코**도 함부로 어른들 계신데서 풀지 말 것이며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일이 있어도

**포**용력을 갖고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어라!

**호**랑이처럼 이 애비가 너에게 대했던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였단다!



**고**운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노**란 손수건을 흔들고 서 있는 저 여인은

**도**량이 넓고 마음이 너무 착하여

**로**인(老人)들을 극진히 공경하기에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지요!

**보**조개가 유난히도 깊숙히 패인 볼에는

**소**리없이 웃는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모두 탐을 내지요!

**조**용한 목소리는 비단결 처럼 곱고

**초**승달처럼 생긴 눈웃음 에 오똑한

**코**는 너무 예쁘게 생겼으며 우리나라

**토**종의 여인상을 지닌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그 여인의 마음은 마치 맑은

**호**수의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답니다!

**고**물고물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니 매우

**도**전적인 인간의 본능을 느끼게 하는구나!

**로**텔라이 언덕위에 작은 오두막집이 그려진 그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함을 안겨주는구나!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소**망은

**오**직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조**기교육이다, 영재교육이다, 하며 다수의 부모들이

**초** 긴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코**흘리게 어려서 부터 올바른 인성(人性)교육을 시켜

**토**끼처럼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포**근한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좋겠지요!

**호**통을 쳐서라도 그릇된 것은 바르게 가르칩시다!

**강**원도 미시령 고갯길을 가다가 잠시

**날**떠러지 절벽에 붙어

**당**당하게 뿌리를 내려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보고

**광**자는 탄성을 지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네!

**광**망대해의 동해 바다는 손짓하며

**방**문하는 관광객을 파도치며 부르고 있네!

**상**상봉에는 금방이라도 굴러내릴 것 같은 바위가

**알**종맞게 서 있구나!

**장**거리 여행에 지치기라도 하련만 차안에서는

**창**가를 부르며 신나게

**강**강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탕**을 먹을까? 회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노래 반주기에서

**광**파아르가 울리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네!

**항**구 도시 강릉에는 오늘도 하루가 그렇게 저무는 구나!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봄!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봄이 왔구나!

**대**청봉 높은 산에는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데....

**래**일(來日 : 한문투의 표현)은 달래,냉이를 캐러 가잔다.

**매**화나무에는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필 것 같이

**배**를 불쑥 내밀고 있네!

**새**들도 봄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앉아

**애**정어린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구나!

**재**물을 있는대로 떨면서 밖으로만 나갈

**채**비를 하고 줄라대는 어린 아이는 호미를 들고 냉이를

**캐**는 흥내를 내고 있네!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활기가 있고

**꽤**기가 넘치는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고 있네!

**구**만리 머나먼 타국땅에

**누**구를 찾아 이렇게 왔는가(?) 궁금하시지요?

**두**꺼운 외투에 곱게 화장을 한

**로**마니아 여성의 얼굴은 너무나도 예쁘구나!

**로**섭기도 하고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였으나

**부**창부수(夫唱婦隨)라 하였듯이 한국의 남성을 따라오기 까지

**수** 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 때에는 한국 여성의

**추**종을 부러워 할 정도로 맛있게 요리를 하며,

**쿠**키(cooki : 과자의 일종)를 특히 잘 만드는 그 여인은

**투**정을 한번 부리지 않고 항상 웃음을 짓고, 또한,

**포**집한 가슴이 돋보이며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호**희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남을 대하면, 서로가

**나**쁜 감정을 갖게 되지요..!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라**일락 꽃 향기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곧,

**사**람을 사귀는 근본이며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지요!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를 운전할 때에도 서로 양보를 한다면 치명적인

**카**운터 블로우(counterblow)를 얻어맞는 경우는 없을 것이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파**헤치기 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해(河海)와 같은 포용력으로 살아 가십시오!

**가**시는 길, 걸음, 걸음, 무거우시겠지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생각이 돌아서면

**다**시 오시구려!

**라**조기(중화요리)에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마**른나무에 꽃이라도 피워 드리리다!

**바**람에 구름가듯 덧없는 세월이 흘러가도

**사**시사철 오르지 당신만을 기다리는 어여쁜

**아**가씨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오!

**자**주고름을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카**페의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손수건만 적시네!

**타**액이 흘러 내리는 줄도 모르고 님생각에 푹

**파**묻혀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 사람의 슬픔을

**하**느님은 아실런지요...!?

**개**구리가 알을 낳아 놓고

**내**리 못 믿어운지 옆을 떠나지 못하고 우는구나!

**대**명천지에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동물도 사람 도 마찬가지로

**래**년(來年)봄에도 똑 같을 것을....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매**정하게도 몰라 주는구나!

**배**아파서 그렇게 키웠건만 올챙이 적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속을 썩이다가 자신이

**애**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재**롱부리는 아이를 끌어안기 보다 부모님을 한번 더 들여다 보시오!

**채**근담에도 있는 말처럼 자식의 허물은

**캐**지 못한다고.... 부모는 그렇게 속을 쏘듯이처럼 까맣게

**태**우다가 수족이 떨어지면 마치

**패**잔병처럼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 합니다!

**해**질녘 논에서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잔잔한 내마음을 흔드는구나!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해금강을 가다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암절벽에 감탄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암반위에서 자라는 소나무지요!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은 수령(樹齡)이 천년이 넘는 그 소나무를 보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믿기지 않는 듯 난간에

**버**티고 서서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서**울대학교 박사 팀이 그 소나무를 감정한 결과

**여**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천 삼백 여 년을

**저**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키가

**커**다랗게 자랄 수 없는 조건에서

**터**를 잡고 분재처럼 모진 비바람에 견디며

**퍼**담을 흠 한 줌 없이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자라고 있습니다!

**허**공을 향해 뻗은 가지는 외로움에 지친듯 흔들고 있구나!

**가**슴이 풍만한

**나**를 보면은 못남자들이

**다**들 사죽을 못쓴답니다!

**라**볶이(라면을 볶은 요리)를 유난히도 나는 좋아하거든요!

**마**음 놓고 먹었다 하면 그것이 모두

**바**로 가슴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킁킁!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지요.

" **아**가씨는 먹고 가슴만 키우는가 봐요..?" 라고,

**자**신이 생각해도 가슴에

**차**고 있는 브레지어가 맞는게 없을 정도예요!

**카**니발 행사때가 되면 출연을 해 달라면서

**타**협하려고 섭외가 들어오기도 하거 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렴치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않는 아주 순진한 아가씨라고요!

**큐**수가 방안에서 텔레비전의

**뉴**우스 시간과 스포츠 중계는 꼭 보지요!

**듀**-스(deuce)라는 용어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면서도 이상한 말이 나오면

**료**-스가 뭐냐? 하고 잘못 듣고 물으시고, 어쩌다 미장원엘 가시면

**뷰**티 샵(beauty-shop)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묻지요.스포츠 중계 중에

**슈**-웃 골인 소리가 나면

**유**연성도 없는 허리를 꾸부리시고 박수를 치신답니다!

**쥬**-스를 한잔 드시라고 하면 물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쵸**리를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엄지 손가락을 세우며

**큐**-하고 멋있다는 표현을 하시며 유난히도

**튜**울립 꽃을 좋아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퓨**-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후**가때 남편과 큰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가**는 방망이에 오는 흥두깨라는 말처럼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게 대해 주지 않지요!

**라**~랄랄라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한다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봉사를 할 것인가? 를 생각한다면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 입니다!

**카**나리아의 밝은 웃음과 행복에 넘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며 즐거움에

**파**묻힐 거예요!

**하**느님은 베푼자에게는 꼭 그런 행운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에미는

**나**가 잘 되길 빌고 또 빌며, 약세사리 가게에서 사온

**디**자인이 고운 머리핀과 문양이 아름다운

**리**본을 머리에 꽂아 주며 쓰다듬어 본다!

**미**간(眉間)에 흐르는 잔잔한 눈웃음은 마치

**비**가 그친 뒤 선명하게 나타난 무지개처럼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구나!

**이**렇게 네가 몰라보게 성장한 것을 보면

**자**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 갔구나!

**차**마자락을 붙들고 칭얼거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키**가 이렇게 홀썉 커버린 네가 무엇보다도

**티**없이 맑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고맙구나!

**피**어오르는 너의 둥근달 같은 얼굴에

**희**죽이 웃는 미소가 더 없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

**가**정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나**가서도 예의 범절을 잘 지키지요!

**다** 성장하지도 않은 젊은이가 노인에게

**라**이타 불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바**로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아**침 밥상머리 앞에서 부터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차**질없이 사회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트가 깔린 거실에서 담뱃재를 떨어뜨려 카페트가

**타**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파**도치듯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청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거**치려진 당신의 손을 만져보니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구려!

**덕**이상의 고생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오!

**려**, 일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머**숨을 살거나 식모살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버**선을 기워 신거나, 짚신을 신는 시절도 아닌데, 모든것이

**서**방을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구려 !

**어**찌다가 당신이 나를 만나 이렇게 되었오?

**저**며오는 이 가슴에 아픔으로 인해 도저히

**차**갓집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구려!

**커** 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복장이 다

**터**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 고 살면 그 동안에

**퍼**담은 우리의 이 사랑이 결코

**하**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행복할 것이오!

☞행복의 샘 ★ e-편한 자료실☞

<http://cafe.daum.net/wow114/2FNW/157>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철에 등산가서

**년**(너는) 각별히 불조심을 하여야 된다. 담배불을

**던**져서 산불이 일어나면 애써서 가꾼 나무들이 마치

**린**그 셔츠를 벗은 것처럼 알몸이 되어 죽는다!

**면** 훗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에 나무가 많고

**연**제나 울창한 숲을 이루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아니되며

**천**하가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의 조화를 잘

**컨**트롤(control) 하여야 한다!

**턴**테이블(turn-table)에서 흘러나오는 나무를 사랑하는 노래를 들으며

**편**퍼짐한(평퍼짐하디의 사투리로 씀) 민둥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신적으로 나무를 심으며 가꾸어야 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노**화가 된 자동차를 정비도 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지요!

**로**푼이 좁은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서게 되면

**모**든 차량들이 지체 현상을 빚게 되지요!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니까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 가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기릅시다!

**초**보운전자들을 비웃지 말고 양보해 준다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맙다고 인사를 할거예요!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는 특히 교통량이 많으므로

**포**용력을 갖고 조금씩만 서로서로 양보를 해주면

**호**의를 베풀 만큼 자신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마솥에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나 혼자 먹으려고 몰래

다락방 구석에 감추던 그 때 그 시절!

라이타 불도 없고 성냥을 많이 쓰던 그때가 그래도

마음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바지 저고리에 웃고름을 단정하게 매고

사랑방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자전거도 사기 힘들어 수 십리 길을 걸어가도 지나가는

차 라곤 없던 그 때 그 거리에는 지금은 마치

카-레이스 경주를 펼치듯 수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바지 저고리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은 그대로 인데 인생만 늙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더니

**날**강도가 따로 없고 이제는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진 것이

**랄** 것도 없는 오막살이 집마저 빼앗아가는구나!

**팔** 많은 집의 장맛이 쓰다고 하는데

**발**가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살**점까지 털도 얹 뜯고 잡아먹으려고

**알**몸뚱이를 송곳으로 찌르는구나!

**잘**한다고 한 쪽에서는 그리도 칭찬을 하면서

**찰**거머리처럼 악랄하게 유린하는 구나!

**칼**만 앓들었지 날강도들이 허가를 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민중의 지팡이들은

**할** 일은 뒷전이고 검은 돈만 챙기는구나!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심판이

**농**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어떤 경기든 간에

**동**생이 선수로 된다고 하여 부당한 심판을 내린다면

**롱**아(蠶兒)들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따를 것입니다!

**롱**동이 세례를 받지 않으려면 공인으로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심판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송**두리채 양심을 팔아먹는 한심하고

**웅**졸한 생각으로 심판을 보게 되면 관중들에게

**종**아리를 맞기 십상이라고요! 선수들도 종료의

**총**소리가 울릴 때까지 전력을 다해 된다면

**콩**나물 시루같이 모인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요!

**통**솔하는 감독들도 감정에 치우쳐 양심을 오물통에

**풍**당 집어넣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감독의 얼굴이

**홍**당무가 될 정도로 관중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오!

꺠호의 손길을 뺏쳐서 이 세상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세상이 올거예요!  
루수(漏水)가 되는 방에서 비가 올때마다  
무심한 하늘 탓만 하면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몸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수 없이 많은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추념을 건어서라도 도와준다면 그들은 맛있는  
쿠키(과자의 일종)라도 내놓으며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포념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후원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요?

**가**랑비가 온종일 내리는 구나!

**나**무들도 겨울 내내 움추렸던 기지개를 펴고

**다**들 순을 내밀어 반갑게 맞이하네!

**라**면을 끓여 국물을 훌훌 마시니 쓸쓸했던

**마**음과 음산한 기분이 조금 가시는 것 같구나!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딸아이가

**사**랑스런 눈빛으로 다가와서, 있는

**아**양 없는 아양을 다 떨며 즐라댄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차**원이 높고 음질이 좋은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한다.

**카**운트(count : 계산)를 해보니 꽤나 비싼데, 이 부모의 속이

**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여식(女息)을 바라보며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달래려고 창밖을 보니

**하**늘에는 안개마저 자욱한 봄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있네!

**가**족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어도 웬지 모르게

**나** 혼자 소외된 느낌이고, 모든 것이

**다** 부질 없는 삶처럼 외롭구나!

**라**이타 불에 담배를 붙혀 피워도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을 잃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먼데, 왜?

**자**꾸만 이렇게 괴로운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차**마 모진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눈가에 맺힌 눈물만

**카**펄트를 적시고 있네!

**타** 들어가는 담배처럼 내마음도 같이 태우며

**파**도와 같은 인생의 이 광풍(狂風)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하**느님 만이 알고 계실 뿐, 그 누구도 모르리...!

**공**해가 심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농**장이든, 공장이든 모두가 자연을 좀 생각합시다!

**동**물들도 사람들도 자연이 너무 훼손되면 말 못하는

**룡**아(龍兒)들 처럼 그 피해가 모두에게 미치고, 정신마저

**룡**룡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되며 눈을 뜰 수 없는

**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송**사리가 냇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수질을 보호하여야

**웅**기종기 모여사는 이웃들도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중**전에는 그토록 맑고 깨끗했던 개울물이 온통

**충**천연색이 되어 흘러 내려가는 물을 바라보며 옛날에는

**콩**나물을 저 개울물에 씻어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통**손마저 씻을 수 없게 되었으니...! 돌맹이를 집어던지니

**풍**당 떨어지는 느낌마저 깨름칙한 빛깔이

**홍**조를 띤 이 샛강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주로 동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여름에는 나무를 꺾어다가 원형으로

**두**르고 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비가 오면

**루**수(漏水)가 되고 하늘이 내다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로**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의 요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철저히 자연을 보호하여 밝은 사회를

**추**구해 나간다면 환경오염에서 오는 역(逆)

**쿠**테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시경 처럼 맑은 물과 조상들이 물려주신

**푸**른 자연을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간**간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영도다리

**난**간을 잡고 서서 슬픔을 달래고 있는데, 지나가던

**단**신(短身)의 한 여인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네!

**관**초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 다리옆 둔치에서

**만**면(滿面)에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니,

**반**듯하게 생긴 미모(美貌)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

**산**산히 부서지는 파도는 밀려와서 방파제를 때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갈매기 만이 비를 피해

**잔**뜩 찌푸린 하늘을 이리 저리 날고 있네!

**관**란했던 젊은 꿈은 어데론가 사라지고, 가슴 속속들이

**칸**칸이 채워진 고독은 새까맣게

**탄**숯덩이 처럼 되어버렸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고독에서 빨리 빠져나와

**환**숨을 짓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꾸나!

**거**울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눈가에는

**더** 많은 주름살이 자리하고 있구나!

**러**브레터(love-letter)를 주고 받던 시절이 었그제 였는데

**머**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흐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버**려진 물과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서

**서**글프게 느껴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구나!

**어**수선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겨 보아도

**저**물어가는 인생열차는 멈출 수가 없구나!

**저**절하게 절규하는 도살장의 가축처럼

**커**다랗게 눈을 떠 보아도 소용이 없음을

**터**득하기까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퍼** 먹은 나이와 늘어난 인생 계급장을

**허**사로 돌리지 않으려면 충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니** 뜻대로 안된다고 네가 딛고 서 있는

**디**딤돌 마져 집어던지면 어려움을 당하리라!

**리**듬(rhythm)을 잃지 말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 질 것 같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여야

**치**성(致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키**질도 처음 할 때에는

**티**를 골라내기는 커녕 남:알만 헤뜨리듯이 매사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히**스테리(Hysterie)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여라!

**가**라고 등을 떠다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 없으면 못산다고 매달리며 애원을 하고 있는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고, 입술을 깨물며

**라**일론 치마자락을 메만지며 몇 번이고 수 없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맹서를 하였건만

**바**보처럼 흔들리는 내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으로 멎든 이 가슴에 상처는

**아**물지 않고 억울한 세월의 고통으로

**자**꾸만 아파오는데

**차**마 모질게 거절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카**누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중심을 잃어버리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질 것 같아 높고 사나운

**파**도에 사랑이라는 정의에 배를 띄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망설이다가 잠이 드는구나!

**가**면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눈에 들어온 타인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듯이

**라**디오로만 듣는 세상이야기 보다 T V를 보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운택하게 하기는 커녕

**아**집(我執)과 비리(非理), 반목(反目)과 불신(不信)만 가중될 뿐

**자**신에게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없애서

**카**리스마(Charisma)적인 향연을 연출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신다면 환상의

**파**티(Party)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 밖에 없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고**스톱을 치며 술을 마시고

**노**는 재미에 빠져 세상을 살다 보면

**도**가 지나치게 되고 , 행여나

**로**또 복권이라도 맞을까(?)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정신을 복권에다 쏟으며 기다린 결과

**보**람도 없이 한장도 맞지 않으면 속이 상하시나요?

**소**리없이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오**직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소(嘲笑)라도 하듯 그렇게 생활하는 이들이

**초**로인생(草露人生)이란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코** 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고

**토**지를 다 팔아서 흥청망청 다 써 버리고, 결국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호**미자루 벼를 삼으시던 부모님 생각을 좀 하십시오!

**갈**잎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산자락에는

**날**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데,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을 되돌아 보니.....

**활**탈라~!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꽃**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때도 많았구나!

**발**달하고 젊었던 소시적에는 정말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정신없이 꿈을 찾아 헤멘적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래도 한 번

**잘**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였건만

**찰**떡 궁합이 맞지 않아서 일깨(?) 아니면,

**칼**로리가 부족한 탓 일깨(?)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탈**만 나고 자꾸만 빠거덕 거리는 구나!

**팔** 다리가 휘도록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공기가 맑고 물도 맑은

농촌에서 오직 흙과 씨름하며

동네에 굶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하던

롱(long)다리에 얼굴이 귀엽게 생기고 가슴이

몽실몽실 풍만한

봉우리를 지닌 키가 큰 아가씨가 있었지요..!

송 아무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옹고집 때문에 도회지 구경 한번 못하고

종일 집안에 묶여서 살던 그 미스 송....!

총각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콩밭을 맴 때에는 남자들이

통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김을 잘 매던 그녀가

풍당 무엇에 빠져 얼굴이 마치

홍당무처럼 빨개지던 그 시절이 그림구나...!

**곡**조(曲調)를 가다듬어 부르는 너의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독**창적인 음성을 지닌 것 같구나! 마치,

**록**음(綠蔭)이 우거진 조용한 산속에서 우는 꾀꼬리

**록**소리 처럼 느껴지는구나!

**복**스럽게 생긴 얼굴에 화사하게

**속**살이 비치는 드레스는 무대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옥**같이 하얀 치아는 관중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기에

**죽**하구나!

**촉**촉히 젖은 듯한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곡**곡 찌르는 듯한 음률(音律)과

**투**쏘는 듯한 고음처리에 관중들은

**꼭**팔하듯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 주네!

**혹**시, 또 리사이틀(recital)을 하게 되면 꼭 알려주려무나?

**개**미처럼 조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산다면

**내** 삶은 물론 윤택해질 것이며 가족 모두에게

**대**체로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래**방(來訪)하는 손님들에게도 즐거움을

**매**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하여 아니,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재**수와 요행(倥倖)을 바라지 말고, 한 푼, 두 푼 통장을

**채**워 저축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노다지를

**캐**듯 행복 덩어리를 캐낼 것이요!

**태**어났을 때 그 여리고 순진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파**망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은 과거시험에

**낙**방하였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거라!

**닥**처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죽을

**락**말락하는 목숨을 부하며 이 땅을

**막**고 지켜온 조상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박**덕(薄德)한 것을 자랑하지 말거라!

**삭**막한 세상살이가 계속되더라도 참고 또 참으며

**악**행(惡行)을 멀리 하거라!

**작**수성례(酌水成禮)로 시작한 삶이지만

**착**하고 어질게 살아 가거라! 속상한다고 하여

**각!** 하고, 목숨을 끊거나 모진 세상살이가

**탁**(濁)하다고 하여 중심을 잃지 말거라!

**팍**삭 늙은 이 에미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학**업에 열중하여 대성(大成)하거라!

**고**르지 못한 날씨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은

**로**봇처럼 혹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모**두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효성을 다하는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소**중한 삶에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오**직 가정의 화목과 안녕을 위해 너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 세상이라고 모두가 컴퓨터와

**코**를 맞대고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하지만

**토**마토가 잘 익지 않은 것은 맛이 없듯이

**포**근한 사랑이 없는 가정은 마치 속이 비어 있는

**호**두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거**울앞에 서서 별거벗은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예쁘다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까? 아니면,

**더** 없이 초라하고 힘이 없는 느낌이 드십니까?

**러**브 신(love scene)을 연출하듯 자신의 장점만을 찾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버**릴곳이 하나도 없는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다!

**서**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때, 거울앞에 서서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느끼시는 감정은 다르시겠지만, 그토록

**차**절하게 자식이라면 불불 떨어져 사랑을 주신 것을

**커**서 나이를 먹은 뒤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터**질 것 같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퍼**먹은 나이가 아까울 것이니 노부모님께서

**허**전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시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고**온다습(高溫多濕)한 여름철에는 물가에서

**노**는 것도 즐겁지만, 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로**링기(산업용 기계의 일종)를 다루는 사람이나

**모**두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보**수를 받는 월급쟁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자신들의 가정에 행복과 가족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디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요!

**초**취한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래도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며 맞이하는

**토**끼같은 자식과 여우같은 마누라의 정겨운

**포**옹이 있기에 힘든 것도 잊고 살아가지요!

**호**수에 백조처럼 우와하게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시탐탐

**남**침야욕을 불태우는 무리들 때문에

**담**을 쌓고 지키는 철책선에 군인들이 있기에

**람**보춤에 삼바춤까지 추며 술을 마시고

**관** 편히 태평하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삼**군 사령부 산하 전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알**만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들이 있기에 믿고

**잠**을 편히 자는 부모형제를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캠**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적들의 침입을

**탐**지하여 섬멸하므로서 그들의 무덤을 그들이

**팜**으로서 평화가 오고 자유민주주의가

**함**몰하지 않고 수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집 부엌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새는 법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집안에서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으며

**라**면에 김치도 없이 푸대접을 받으면 밖에서도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집에서 절대로

**바**가지를 굶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면 상쾌한 하루가

**자**신의 업무에 반영되어 활기차고 원활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쁘게 보내 주십시오!

**카**나리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타**인의 추종을 부러워 할 정도로 승승장구하여

**파**장을 더 넓고 크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게 될 것이니까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애당초 집을

**나**서지 말았어야 할 것을 그렇게 울며 매달리는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것을 두고 나와 이렇게

**라**운지에서 홀로 앉아 흐느끼는 여인아!

**마**음속에 쌓인 한을 울어봐도 풀길 없는데.....

**바**람 부는 신장로에는 빗방울이 눈물되어 떨어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마음을 달래줄 만한

**아**량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철부지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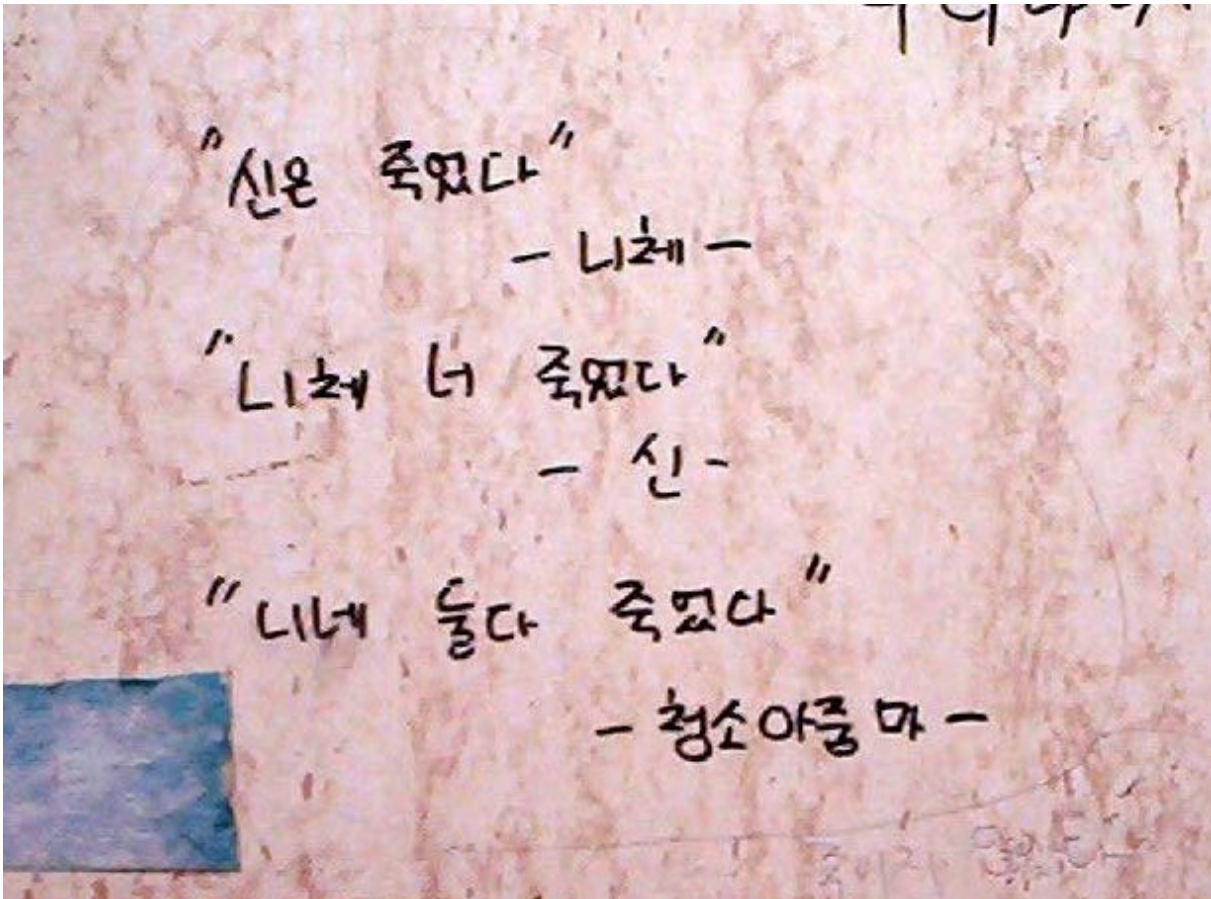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성질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타**의 모범이 되지않는 행동을 한다면, 곧,

**파**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오!

**하**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각** 지방을 돌아다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러보면



<http://cafe.daum.net/rohanonch/LTz7/261>

**낙**서를 해 놓은 곳이 너무 많지요.

**닥**치는 대로 함부로 낙서를 하여 아무리

**락**스로 닦아도 잘 지워지질 않지요.

**막**상 그 낙서를 읽어보면 낮이 뜨거울 정도이고

**박**박 문질러서 닦아보아도 안지워져요.

**삭**막한 세상이라지만 그렇게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악**한 글을 써 놓으면 결국은 나라 망신 아닐까요?

**왁**은 것 하나라도 국가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각**하고 아무리 죽고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트**월한 자신의 개성을 살려 좋은 일을 한다면

**꼭** 밀어주는 후원자가 생길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공중 화장실을 우리 모두 깨끗이 사용합시다!

**갈**망(渴望)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피나는 노력을 하였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잠시라도



<http://search.daum.net/search?>

[t\\_nil\\_searchbox=sugtop&w=tot&sType=tot&q=%B4%DE%B8%AE%B4%C2+%B8%BB%BF%A1+%C3%A4%C2%EF%C1%FA](http://search.daum.net/search?l_nil_searchbox=sugtop&w=tot&sType=tot&q=%B4%DE%B8%AE%B4%C2+%B8%BB%BF%A1+%C3%A4%C2%EF%C1%FA)

**달**랏라~ 콧노래를 흥얼거릴 여유도 없이

**발** 그대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 왔습시다!

**알** 수 없는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정말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만 떠오르는구나!

**활**거머리 처럼 사랑한다고 매달리던 그대를

**칼**로 무우 찌르듯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섰으니.....

**탈**이 날 수 밖에 없었나 보구나....! 모든 것이 다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자신을 위로해 보건만

**할**증료만 올라가는 인생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번 뿐인 인생인데.....!

**라**이타 불을 켜 담배를 한 모금 들어 마셔도

**마**음의 허전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채울 수가 없네!

**바**람같이 순식간에 흘러가버린 세월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네!

**아**랑드롱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능름한

**자**태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네!

**차**단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카**푸치노 커피향에 취해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보네.

**타**들어 가는 담배 연기의 오묘한 그림은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치듯 흔들리며 공기속으로 사라지네.



<http://blog.daum.net/saipansantarosa2/7175274>

하긴 언젠가는 모든것이 다 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테지.....!

**구**한말 시대,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누**더기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도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었지요... 여자들은

**루**우즈(rouge)를 바르지도 못하고

**무**슨 화장인들 제대로 하였겠습니까?

**부**자들이야 그래도 비단 옷에다

**수**를 놓아 입기도 하였지만, 서민들은 고작해야

**우**물가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정도 였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Acorus\\_calamus1.jpg](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Acorus_calamus1.jpg)

**주**인 마님이 있고 종(시녀)이 있던 시절,



**추**수를 하여도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뱃속은

**쿠**렁쿠렁하게 비어 쪼로록 소리가 들리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호박을 따다가

**푸**랭이 죽을 쑤어서 주던 그때를 살던 그 사람들이

**후**한 인심과 그래도 인정이 넘치는 시절이었지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스러운 생각이 들지요!

**더**운 여름철이 되어도 방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추운지방을 그저

**머**리속으로 상상하며 땀을 수건으로 닦고

**버**터야 하는 늙은이의 그토록 괴롭고

**서**러운 심정을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어**찌 알리가 있겠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http://blog.daum.net/sarangbang21/546633?nil\\_profile=tot&srchid=IIMt8BDF00](http://blog.daum.net/sarangbang21/546633?nil_profile=tot&srchid=IIMt8BDF00)

**저**물어 가는 인생의 황혼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초**녀 총각시절의 꽃피던 그 추억을 떠올리고

**커**가는 손주녀석들의 그 양증맞은 재롱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가지요...!

**퍼**져오는 통증을 참으며 잔뜩 꼬부라진

하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는 노인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http://cafe.daum.net/rudghwnd23ghl/7esp/198>

**날**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고, 평지에선 천천히

**당**당하게 흘러가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강**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망**망대해로 흘러가는 저 강물이

**방**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상**처뿐인 이 가슴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왕**상한 나뭇가지처럼 외롭고 쓸쓸함만 남아 있는가..?

**장**부의 그 큰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창**공(蒼空)을 날으는 새들도,

**강**가루처럼 새끼를 배주머니에 넣고 사는 짐승들도,

**탕**! 탕! 탕! 총소리만 들리면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데...!

**팡**개질치는 돌팔매에 맞았다고 하여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며, 말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갈**잎이 뒤집어 지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날**갯이를 할 것 같구나....!

**달**력에 24절기 중에 소만(小滿)이 되면 농부들이

**랄**탈랄라~ 모내기를 할 계절이 되었는데, 윗방에 있던

**말**만한 처녀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모를 쫓는데,

**발**에 거머리가 달라붙어 주둥이로 처녀의 고운 다리의

**살**을 뚫고 피를 빨아 먹는 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를 열심히

**할**도 심던 그 처녀의 모습이 떠오르네....!

**찰**거머리란 놈이 얼마나 실컷 빨아먹었는지, 처녀의 다리가

**칼**로 콕 찍어 파놓은 듯 뚫어져 피가 흐르네.

**탈**지면도 없는 논에서 지혈(止血)을 시킬 수 없어, 총각이

**팔**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고서 옆에서 모를 심던

**환**머니의 허리띠를 찢어 처녀의 다리를 감아주던 생각이 난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은

**나**라의 경제도 하락하게 되지요!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며, 이러다가는

**라**면도 못 끓여먹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바**깎마당 나무 그늘에 엎드려 자던 개가

**사**지를 쭈~우~욱 피며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무엇인가 먹을 것이 생각난 모양이로구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차**라리 아무 걱정없이 살아가는 개팔자가 부럽구나!

**카**드 빚 갚을 걱정, 생활비 걱정, 자녀 학비 걱정하며,

**타**들어가는 속앓이를 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고

**파**산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운명하는 사람을 보며

**하**도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어찌 원망하지 않으리오!

**가**정에서 올바른 예절을 배운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예의 바른 행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여 함부로 어른들한테

**라**이타 불 좀 빌려 달라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신경을 쓰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아**침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양보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작은 목소리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차**갑고 냉정한 화살을 맞는 일은 없을 것이요.

**카**네기의 인간 관계에 대한 책을 읽혀서라도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르친다면

**파**멸의 구덩이에서 허위적 거리게

**하**는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항상

**니**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디**지털(digital)세상 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리**더(leader)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비**록 작은 것 일지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시**작에 불과한 네 인생의 설계를 잘하여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며

**최**열한 경쟁사회에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을

**키**타소리 쯤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티**를 골라내듯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여야 하며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여서 전 축구감독

**히**딩크처럼 이 나라에 큰 기둥이 되거라!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저승에서

**누**구를 원망하리오...! 이승에서

**두**더지처럼 땅을 일구며 사는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루**비 반지 한번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지요....!

**루**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빌기를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달라고

**수** 없이 빌고 또 빌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도 없었고, 앞에 닥치는 일마다

**주**로 안좋은 일만 있었지요....!

**췌**야장장 긴긴 밤을 홀로 지새우며, 행복의

**쿠**우퐁(coupon :프랑스 어)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투**쟁의 골이 깊은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 결국

**푸**념하며 세상을 떠난 몸이, 혹시라도

**후**세에 환생(還生)한다면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오.....!!!

**가**상공간에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 몰라 라는 식으로 함부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 청취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곧 범죄행위가 되며

**사**이버 범죄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렇게나 방언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 글을 써서

**자**꾸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낮 뜨거운 성인광고와

**카**드 번호나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파**렴치 범들의 못된 행동들은 저 세상에 가면

**하**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에도 요즈음은 노인정에서

**로**이드(Lloyd)같은 안경을 끼고 있는 노인들이 많지요!

**모**든 젊은이들은 공장이다, 직장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보**다 나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떠나가 버렸으니

**소**용가치가 없는 노인들만 외롭게 살아가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속히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노인들의 환경은 시급히

**토**론을 거쳐 노후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포**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화로운 생활보다 걱정 근심이 없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상대방을

**난**감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지요.

**단**지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관**을 심을 때에도 화분을 이런 것을 쓰라느니.....

**만**삭(滿朔)이 된 임신부는 화장실에 가셔도 조심하라느니....

**반**찬을 먹을 때에는 골고루 먹으라느니.....

**산**책을 나 갈 때에는 그런 옷차림이 안좋다느니.....

**안**경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골랐다느니.....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수다를 떠는 경우가 있지요.

**찬**물 인지? 더운물 인지? 생각하지 않고서, 함부로

**칸**을 막아놓은 커튼을 열어젖히는 것은, 분노의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때와 장소를 가려

**판**단을 잘하고 끼어들지 말아야 할 때에는 조용히

**한**쪽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로수 그늘이 하늘을 뒤덮은 거리에

**나**들이를 떠나는 관광버스 행렬이 즐비하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광능 수목원 길옆에는

**라**이프 카페가 있고, 숲속에서 거닐다 보면 정말

**마**음의 상쾌함을 느끼게 하지요!

**바**람이 솔솔 불면 나무 향기가 그야말로

**사**람들의 콧속을 자극시키고 싱그러움을 더하지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을 이용해 한번 둘러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차**츄츄 알게 될 것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한곡 듣는 기분도 너무 좋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신선함에 취해서 콧속을

**파**고드는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를

**하**루 종일 맡느라고 해가 가는 줄도 모르지요!

**고**지(高地)에 오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도**사(道士)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시가 있어야 하지요!

**로**마의 교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듯

**모**든 일은 정해진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갖지 말고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조**금도 못 오를 것이 없지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코**앞에 이익만을 쫓아 경솔하게

**토**끼처럼 행동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 꼭 올 것ियो..!

**굴**비 한 마리를 천정에 걸어 놓고 쳐다보며

**술**른 보리쌀로 밥을 지어 밥상머리에 빙

**둘**러앉아 반찬도 없이 밥을 먹으며 구두쇠의

**룰**(rule : 규정)이 정해져 있던 자린고비가 있었지요!

**물**론 그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불**고기도 먹다가 먹기 싫으면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고

**술**도 먹다가 쏟아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것은, 그토록 버려지는 음식이

**줄**에 걸어 놓은 굴비를 쳐다보면서도 못 먹고

**출**출한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쿨**쿨 낮잠을 즐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툴**(tool : 자료)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직도 목에

**풀**칠할 것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그 음식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날**이면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달**이면 달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인생이

**탈** 것도 없이 살아온 처절한 매춘부의

**말** 못할 사연을 그 누가 알리오.....! 어쩌다가

**발** 길을 잘못 들여 놓아 이 모욕을 당하며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을 참아야 하는가...?

**알**몸으로 의지할 곳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잘**못을, 누구를 원망하리오..! 밤마다

**찰** 거머리처럼 달려드는 요도를 성질난다고

**칼**로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같은 삶을 살면서, 밤마다 몸을

**팔**아야 하는 한 많은 이 여인의 눈물을 아십니까...?

**할**말이 있어도 하지못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소서.....!!!

**강**제로 빼앗은 사랑이 쾌락은 있겠지만

**낭**패를 만나는 것이, 두 말할 필요없는

**당**연한 일이지요!

**랑**자의 그 여린 순결을 무참히 짓밟아서

**망**가뜨리고, 결코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방**갈로 한쪽 나무그늘에 있는 벤치(bench : 긴 의자)에 앉아

**상**처로 얼룩진 지난 일을 생각하니....

**왕**중맞은 그녀의 눈웃음이

**장**시간 나의 머리속을 흔들어 놓고 떠나지 않네.

**창**을 들고 쫓아오는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는

**강**가루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치 뜨거운

**탕**국을 목에 넘긴 것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며

**팡**세의 격렬한 음악을 연주하듯 몸부림치며

**항**구를 떠나버린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네....!

**고**동소리가 울리는 바닷가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

**노**을이 붉게 하늘을 바라보네!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로**스구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모**든 피로와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고 거짓이 없는

**소**박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속에서 복잡한 생활을 하다가

**조**용하고 정취가 있는 곳에서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초**록빛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생선회를

**코**끝이 짜~잉 할 정도로 먹는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토**요일을 택하여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생선회를 드시다 보면 누가

**호**출하여도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을 잔뜩 마시고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도**로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말았지요!

**로**진스키(술의 일종)에다 이것 저것

**모**든 술을 신나게 마실 때에는 본인은 좋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지요!

**소**설이나 연극에나 나올법한 일들이

**오**늘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덜 마시고 절제를 한다면 그렇게

**초**라하고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텐데 말이오!

**코**를 땅에 질질 끌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토**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포**도주처럼 도수(度數)가 약한 술도 많이 마시면

**호**흡 곤란 및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구**슬이 열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가정이 편안해야

**두**루 편안한 것 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부**서진 우산으로는 비를 피할 수 없고

**수**명이 짧은 사람에게는 보약이 필요없듯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남의 집의

**추**녀 밑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 신세가 되니,

**쿠**웨이트를 비롯하여 외국을 여행하며 즐겁게 살려면

**투**정을 부리지 말고, 참고 열심히 살아 가십시오!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후**회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쬰이는 바닷가에는

**날**만적인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야한 수영복을 입은 아름다운

**량**자의 몸매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망대해를 날으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지요.

**상**큼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파라솔 밑에서

**양**증맞게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장**단을 맞추듯 발을 흔들고 있네...!

**창**파에 몸을 맡기듯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강**강춤을 추다가 모래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탕**수욕을 안주삼아 기분좋게 먹고 있는 사람도 있네!

**팡**팡하게 공기를 집어넣은 비치볼을 갖고 노는데,

**화**구를 떠날 뱃고동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네!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도전하십시오!

**나**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특히

**다**른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라**이벌(rival) 의식을 갖고 선의에 경쟁을 한다면

**마**의 최고봉이라 하여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위가 아무리 커도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깨지듯이

**사**람의 생각이 집중 되어 모든 일을 시도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다 해결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차**후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지요!

**카**바이드(carbide)가 물과 혼합되어 산소와 결합하면 쇠도

**타**게하여 녹이는 화력이 발생하듯이 집념에서

**파**생되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크지요!

**하**룻밤을 자더라도 만리장성을 쌓으십시오..!

**고**란사 종소리는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데

**노**승(老僧)의 염불소리는 귀에 들리는 듯 마는 듯 하네..!

**도**처에 깊은 산중에는 적막함 만이 감돌고

**로**강의착(露降衣着 : 한문투의 표현)에 선선함을 느끼게 하네!

**모**든 세상사를 다 접어두고 외로운 산사(山寺)에 들어와서

**보**잘 것 없는 인생의 무상함에 감회(感懷)가 남다르네.

**소**승(少僧)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오늘**은 하루가 저물었으니 그만 안으로 드시란다.

**조**그만 체구에 승복(僧服)을 입은 모습으로 보아 꼭

**초**등학교 나이 또래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코**를 만지작거리며 겸연쩍은 듯 조심스럽게 말을

**토**하고는 산사로 향하는 그 소승을 따라

**포**장되지 않은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데, 어쩐지

**호**랑이가 꼭 나타날 것 같은 섬뜩함을 느끼게 하네..!



**굴** 건제복(屈巾祭服)을 입은 상주가 슬픔을 억지로

**눌**려 참으며 조상(弔喪)을 받는데, 여기 저기

**둘**러앉은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룰**(rule : 규칙)을 정하고 고스톱에 포카판을 벌리고 있네.

**물**을 벌컥 벌컥 들이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돈을 잃어 속에서

**불**이 나는 모양이로구나!

**술**까지 몇 잔을 들이 키고서는, 슬프게 고인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상주에게 노름 밀천을 대 달라고 하니.....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는 노릇이네!

**출**출한 배를 컵라면으로 요기를 하고서

**쿨**, 쿨, 잠고대를 하면서 두어시간을 자고 일어나

**룰**룰(투덜 투덜 : 의성어로 사용)거리며 혼잣말을 하더니

**풀** 하우스(full house) 하는 소리에 본전 생각이 나서

**홀**라 판에 끼어 밤을 흘랑 새고 말았네!

**가**랑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하는데

**나**귀 한 마리가 처량스레 비를 맞고 서 있네....!

**다** 젖은 털을 몸을 흔들어 털면서 마치

**라**켓 볼을 치듯 머리로 몸을 툭툭 치며 핏지만, 몸이

**마**를 리가 없지요!

**바**로 옆에 헛간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묶어놓은 이 고삐 때문에

**아**무리 비를 피해 들어가려고 하여도

**자**신의 목만 아플 뿐 소용이 없구나...!

**차**를 타고 아침나절 나간 주인은 차가 고장나

**카**센타에서 차를 수리하는지? 무슨 일이 있길 래

**타**고 올 차가 없어 이렇게 비를 맞게 하는가?

**파**발을 보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으련만, 동물이라

**하**는 수 없이 오는 비를 다 맞고 서 있네....!

**구**구절절히 애틋한 이 원통한 이산의 아픔을

**누**가 알아 주고, 어느 누가 보상하리오!

**두**고 온 고향산천에 부모형제를 그리며

**투**안(淚眼)이 마를 날이 없다오.....!

**무**슨 놈의 세월이 이다지도 야속하게

**부**모형제 처자식을 지척에 두고서도 만날 수 없단 말이오....?

**수** 많은 새들은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 철의 장막을 쳐놓고서 혈육의 정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오....?

**추**녀 밑에 매달린 달을 바라보며 그 원수같은 놈들의

**쿠**테타라도 일어나 철조망을 걷어내는 자유의

**투**쟁을 벌렸으면 좋으련만, 어찌된 일인지?

**푸**념하며 애걸해도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후**임자가 없단 말이오..?

**거**의 종착역에 다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웁니다!

**더** 사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이 장마철에

**러**시아도 아닌 저 세상으로 떠나신다면

**머**리를 들고 동네사람들을 어찌 뵈 수 있나요?

**버**티기 힘든 운명의 수레바퀴는 목적지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어**머님을 데려가려고 마구 굴러가는데

**저**의 소원은 제발 남북통일이 되어서

**쳐** 자식 부모형제를 만난 뒤에 눈을 감으신다면

**커**다란 행운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산가족이 된다면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깜빡 졸다가 깨어보니, 너무

**허**전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가**엾은 어머니가 이제는

**나**의 곁을 떠나시려 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곳

**라**스베가스도 아닌 ;이 세상을 떠나시려 합니다.

**마**당에는 나의 눈물처럼 비가 주룩 주룩 내리고

**바**람은 불어 나뭇잎은 흔들리는데

**사**랑하는 이 자식의 정성도 뿌리치시고

**아**주 먼 저 세상으로 가시려 하십니다!

**자**려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

**차**안에 홀로 앉아 흐르는 눈물만 닦고 있네....

**카**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통곡을 하지만

**타**들어가는 이 심정을 그 누가 알리오...!

**파**수꾼이 되어 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용서만을 비읍니다!

**가**엎은 어머니를 들어 안았을 때 너무 가벼워서

**나**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말라비틀어져 뼈와 가죽만 남은, 마치

**리**일론 형값을 나무등걸에 씌운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바**닥에 아무리 두꺼운 요를 깔아드려도

**사**자와 등이 배긴다고 하시며 모두

**아**프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몸이 말랐으니 어찌

**자**리인들 편할리가 있을까요..!

**차**마 그동안의 불효를 저지른 죄책감에 말씀도 못 드리고

**카**시미론 이불처럼 가벼워진 어머니의 옥체를 보며

**타**들어가는 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뿌리처럼 호호백발이 되신 어머니의 머리를 쓸어안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나**의 인격을 높이기 위하여 매사에 삼가하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이 될 것이오...!

**라**디오 드라마에서 종종 비유되는 방송이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속담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리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 때 변한다면

**자**칫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오!

**차**분한 몸가짐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스승님께

**카**운슬링(counselling)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파**한(破開)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오!

**개** 구장이 아들 녀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본다!

**대**부분 가난했던 그 때 그 시절에는 먹는 것이

**래**야 고작 수수깡을 꺾어 껌데기를 벗겨 단물을 먹다가

**매**를 맞기 일수였고 군것질 할 것이 별로 없어 늘

**배**가 고팠던 그 때 그 어린 시절, 초가지붕 추녀 속에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밤에 몰래

**애**들과 같이 손전등을 들고 비추며

**재**빨리 손을 집어 넣어 참새를 잡아 구워 먹고

**채** 생기지도 않은 그 알도 꺼내서 삶아 먹었지요!

**캐**고 난 남의 고구마 밭에서 찌꺼기를 구워먹으려다

**태**우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안타까워 했어도

**패**기만만했던 그 어린 시절에 환한 웃음을 짓는

**해**바라기 꽃처럼 꿈을 키우던 그 때가 그림구나.....!



**걱**정만 한다고 가정경제가 윤택하고

**늑**해지지는 않겠지만, 없이 살아도

**덕**을 쌓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룩**비 공은 절대로 똑바로 굴러갈 수 없듯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벽**차고 조금 힘에 겨웁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하겠지요.

**석**달 열흘 백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선하게 살며

**익**지로 모든 일을 추진해서는 안되겠지요.

**적**선지가(積善之家)는 필유여경(必有如慶)이라 했듯이, 상대방과

**척**(刺)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킅**! 하고, 당장 목에 걸리는 줄 모르고

**퉁**밀에까지 찰 정도로 검은 돈을 먹다가

**퍽**! 하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그 거짓과 비리에

**헉**헉거리며 목 말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무더운 복지경(伏之傾)에는 그래도 시원한

**나**무 그늘이 제일 좋지요. 그렇게 더워도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덥다고 못 참고서

**바**지를 훌렁 벗고 속옷 바람에 거실에 앉아 있다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흥 을 볼 것입니다...!

**아**이스 크림과 같은 찬 음식은 일시적인 더위는 잊게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말고, 덥다고

**차**게 먹지 말고 더울 때는 뜨겁게 먹는 것이 좋지요.

**카**시밀론 이불처럼 얇은 이불이라도 덮고 자야 하며

**타** 지역에 피서를 가셔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요.

**파**라솔(parasol:프랑스 어)이나 나무 그늘만 찾지 말고 장마철을 대비해

**하**수도 및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나 점검하십시오!

**기**약도 없는 이별을 하고서 이렇게

**나**를 불러 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디**달방아를 밟는 발이 힘없이 밟히고

**리**무진을 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구나!

**미**워도 미워할 수도 없는 그대에게

**비**상(飛翔)이 있어도 날아갈 수 없구나!

**시**절을 잘못 만나 모진 수난을 당하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지**겹다고 마음을 먹다보면 헤어나기 힘드니....

**차**다거리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거라!

**키**보드(keybord)에 떨어지는 슬픔의 눈물들이

**티**끌처럼 하나 둘 모여 글이 되어 나타나

**피**맺힌 한을 품고 저 세상을 떠난 영혼은

**히**말라야를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구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려 들지 않을 것이오!

**두**고 두고 가슴에 담아 두지도 않겠오!

**루**우프(피임 기구의 일종)를 끼지 않고, 피임약을 먹지 않은 몸이

**무**슨 면목으로 말을 할 수 있으리오!

**부**끄러운 일을 당한 처녀가

**수**치심 때문에 얼굴을 들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홀로

**우**는 모습이 애처롭구나.....!

**주**범은 오직 그 놈 때문에 이렇게

**추**한 모습이 되었으니 모두가 내 탓이로다!

**쿠**웨이트나 외국으로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푸**쫓간의 고깃덩이가 누구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니.....

**후**세를 위해서 그냥 낳아 잘 키우겠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방향을 모르는데

**나**침판마저 잃어버렸구나.....!

**따**분하개 비는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라**둠 광산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마**침 불어오는 태풍을 만나 추락 직전에 낙하산을 타고

**빠**저나와 목숨은 구했으나 어쩌면 맹수와

**싸**울 수도 있으니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네..!

**아**침인지? 저녁인지? 해를 봐야 알 수 있을텐데...!

**짜**증을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차**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네...!

**카**리브해 인지? 대서양 인지? 모를 바닷가에서

**타**결책을 찾을 수가 없구나 ...! 일확천금을 얻으려다

**파**란(波瀾)을 만났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일러 주시구려..!

**구**리반지로 맺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두**터운 정으로 맺어진 그 사랑의 향기는

**루**이보스티 차(茶) 향기처럼

**무**척 구수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났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고 받는 사랑의 진가는 물질이기보다 성질이므로

**추**억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고 있기에, 그 어떤

**쿠**우풍(coupon)보다 귀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서로가

**투**명한 유리처럼 거짓 없이 대하고 두 사람의

**푸**른 꿈을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굳은 맹서를 했거든요!



<http://cafe.daum.net/tourngoodmans/HxCX/104>

**고**군산열도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들에

**노**을이 바닷물과 어울려 참으로 아름답구나!

**도**로는 있어도 차는 다닐 수 없는 섬에서

**로**맨틱한 풍경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서자, 섬마을 사람들이 마치

**보**석이라도 찾듯 바닷가에서 맛살을 잡기위해

**소**금을 뿌리자, 맛살이 뼈죽이 위로

**오**르는 것을 손으로 잡는 모습이 재미있네!

**조**그만 섬들로 둘러쌓인 그 곳에 가면

**초**가지붕과 같은 섬들이 육지 사람들을 반기네!

**코**믹한 전설이 어려있는 할매 바위에 감탄사를

**토**하게 만드는 구나!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오묘함을 바라보니

**호**사난상(胡思亂想)을 모두 잊게 하는구나!

##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 2 권

블로그 重傳/이희빈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저자 重傳 이희빈

발행일 2011.02.14 22:54:27

 블로그